

월간 <베이커리> 창간 1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쳐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월간 <베이커리>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3시 캐피탈 호텔에서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축하는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월간 <베이커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각계 인사와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 지회장, 협력업체, 협회 중앙회 직원 등이 참석해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993년 월간 <베이커리> 창간부터 2003년 송년호가 나오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월간 <베이커리>의 여정을 나레이션과 함께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지나온 역사를 함께 되짚어 보던 많은 사람들이 감회에 젖어 장내가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가장 뜻깊게 한 것은 월간 <베이커리> 창간에 크게 공헌한 당시 협회장 이흥경 고문과 이선우 전 사무총장에게 공로상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한 우수직원에게 김미선 기자와 김명숙 디자이너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시상순서였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어려운 환경에서 월간 <베이커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제과인의 성원과 격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1월호부터 기사와 디자인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월간 <베이커리>를 선보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월간 <베이커리>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박소희 기자



- ① 월간 <베이커리> 창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 왼쪽부터 임현양 제과명장, 흥행홍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교장, 김종익 고문, 이흥경 고문, 김영모 회장, 박근성 고문, 박정웅 (주)한국컨설팅 사장, 조성민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이사장.
- ② 김영모 회장은 이흥경 고문과 이선우 전사무총장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 ③ 지회지부와 월간 <베이커리>를 위해 일한 우수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성동·광진지회 이순숙 사무국장, 양천지회 송은순 사무국장, 경기도지회 군포·의왕지부 강미양 사무장.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 태풍 매미 피해 지역 순회 방문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은 지난해 11월 29일 태풍 매미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마산, 거제, 통영 지역을 위로 방문해 지회의 결속을 다졌다.

협회에서 공식 행사로 마련한 이번 방문은 김영모 회장과 박찬희 부회장이 이남호 사무총장이 참여해 경남지회 공삼포 지회장의 안내로 복구현장을 둘러보며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크게 안타까워하는 한편, 각 지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마산지부 정창국 지부장 과, 거제지부 양승만 지부



장, 통영지부 김충권 지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방문해준 회장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피해 회원의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김충권 지부장은 지부 창립 후 협회 회장



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회장단을 따뜻하게 반겼다.

이번 방문은 협회 중앙회와 지회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앞으로 협회 발전 모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대한제과협회 2004년 사업계획 워크샵 가져 회장단 전원 참석해 세부 방안 논의



지난해 12월 15일 (사)대한제과협회 2004년 사업계획(안)의 검토를 위한 워크샵이 CJ(주) 인재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조병천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박승환, 박찬희, 성완석, 신동균, 유현식 부회장 등 회장단과 각지원 기술분과부위원장,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우원석 기술지도부위원장이 참석해 올해 실시할 협회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은 (사)대한제과협회 2004년 신규 사업으로 상정된 제1회 여성기술인경연대회 등의 기술발전 사업, 월드컵이스트리팀챔피언쉽 선수단 및 연수단 파견, 제빵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 선수 파견 등의 국제교류사업을 포함해 각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전국 순회 세미나 등 기술 세미나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가졌다.

협회 발행의 월간 <베이커리>를 창간호부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한편 그동안 제과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펼쳐 온 불우이웃돕기 사업들을 협회 차원의 푸드뱅크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과업계에 대한 이미지 강화를 꾀하기로 결의했다. 김미선 기자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보건복지부 주최 자선행사에 케이크 증정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참여해 각각 300인 분의 케이크와 쿠키를 기증했다. 해마다 연말이면 보건복지부 여성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람회에서 보건복지부 건물에서 자선찻집을 열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고아원, 양로원, 독거노인 등에 전달한다.

행사 첫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김영모 회장은 이남호 사무총장과 함께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자선찻집에서 판매할 케이크와 쿠키를 기증한 뒤, 김화중 장관을 비롯해 강윤구 차관 및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과업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인천시지회

지회 사무실 이전 현판식 거행



인천시지회(지회장 조영규)는 지난해 10월 28일 사무실 이전을 한 데 이어 11월 17일 (사)대한제과협회 유현식 부회장을 비롯해 여러 지회 고문 및 관련업체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인천시지회가 옮긴 사무실은 약 32평의 공간으로 26명의 임원진들이 지회 살림을 꾸리고 있다. 새로 옮긴 지회 주소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6-1 대진빌딩 602호. 전화는 032-432-4889.

오산시지부

임원단 단합대회 개최



오산시지부(지부장 김중규)는 지난해 12월 5일 설경이 아름다운 오대산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규 지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8명이 전원 참석해 오대산을 등반하며 임원간의 화합을 다졌다. 산행을 마친 임원들은 경기 불황을 타개할 논의를 하며 오산지부의 발전을 모색했다.

충주지부

배재권 신임 지부장 선출



충주시지부(지부장 배재권)는 지난 12월 5일 배재권 씨(사진)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배재권 신임 지부장은 그린풍차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지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